화엄의 세계,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11월 24일~12월 22일, 설법전

종정 성파 대종사 입재 법문
법성게 및 천도재 기도 이어
〈화엄경〉 강설 릴레이 법문
100년만의 불사 문수전 상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화엄산림대법회 모습.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매년 음력 11월 한 달 동안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화엄경〉 강설 릴레이 법회로 정진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화엄산림법회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이후 오후 6시 30분에 법성게 기도를 진행해 정진을 이어가며,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상단불공 후 천도재를 봉행한다.

화엄산림법회 기간에는 전국의 불자들이 영가 위패를 설법전에 함께 봉안하고 〈화엄경〉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을 발원한다. 회향일에는 법회 기간 동안 봉안한 영가 위패를 소각하는 의식으로 회향한다.

입재식은 11월 24일 오전11시 설법전에서 봉행되며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한다. 성파 대종사의 화엄산림법문은 입재일과 회향일 두 차례 있을 예정이다.

화엄산림법회 법사는 선·교·율을 대표하는 대강백으로 前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前 통도사 강주 각성 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前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용학 스님, 前 조계종 교육아사리 신경 스님, 前 화엄사 강주 종곡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해인사 율주 경성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前 해인사 강주 원철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동명대 석좌교수 수진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통도사 율원장 도암 스님, 대구 보현사 주지 자광 스님, 前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前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만초 스님,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 조계종원로의원 보선 스님, 前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창녕 관룡사 주지 정안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前 쌍계사 강주 반산 스님이다.

법회는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되며 일요일은 오전 10시 20분에 시작된다. 11월 4일과 12월 18일에는 월하 스님과 벽안 스님 추모다례로 진행된다.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동참금은 영가 1위당 2만 원이며 생축 1인 10만 원이다. 문의 및 접수는 통도사 기도접수처(화엄전)로 하면 된다.

한편, 통도사는 11월 8일 경내 문수전 불사현장에서 문수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문수전은 기존 전향각 자리에 건립될 예정이며 규모는 3만 4000㎡부지에 건축면적 8200㎡, 지상 1층, 3칸 겹집구조이다. 문수전은 통도사 경내 100년 만에 처음 있는 불사로 통도사 문수전에 대한 사적 기록을 발견해 건립하게 됐다.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 경내에 문수전이 없어 의아해했었다. 이 자리에 문수전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게 됐고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문수전 불사로 불보살을 모신 법당을 모두 여법하게 갖추게 돼 의미가 있다. 문수보살의 지혜를 원하는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개최

11월 6일, 기장정관중앙공원서
기장차문화 홍보·도예문화 계승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6일 기장정관중앙공원에서 '제9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진은 허황후에게 차를 올리는 모습.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이 한·중·일 국제 교류와 차문화 보급을 통한 전통문화 살리기에 나섰다. 향기로운문화동행은 11월 6일 기장정관중앙공원에서 '제9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사장 보혜 스님을 비롯해 (사)세상을 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기장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 정종복 기장군수, 허충순 부산차인협회 명예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의 최경철(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이수자)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허황후 헌다례, 부산시장 표창, 축사 및 격려사, 동행문화상 시상, 한·중·일 무대차(茶)시연, 전국 아름다운 찻자리 대회 시상식, 6대 다류 찻자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사장 보혜 스님은 허황후 헌다례를 통해 부산 기장이 가야문화권임을 강조하며 "허황후 헌다례를 주관하는 일은 가야의 역사를 깨우는 일"이라며 "부산과 금관가야와의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는 유물이 기장군 철마면에서 나와 허황후 헌다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은 시상식에서 정여 스님, 허충순 명예회장에게 부산시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김영희 차인지 편집주간에게 허황옥 차인대상을 전달했다. 이어 김수로 문화대상과 차성문학대상, 시의회의장 감사장, 국회의원 표창, 동행공로상 등을 차인 및 문학인에게 전달하고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치하했다.

보혜 스님은 "50인의 찻자리 대회가 펼쳐지고 노고에 감사하는 시상도 많아져 축제가 더욱 풍요롭고 그 속에 회원들의 노고와 정이 더욱 따스하게 익어간다"며 "차문화 향연의 장에서 차에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과 불자 여러분들이 함께해 행복한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사장 정여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로 풍요로움과 깊이가 더해져 축제의 격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것 같아 문화동행의 의미가 더해진다"며 "기장차문화를 알리고 차문화와 연계되는 도예문화를 전승,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안사, 제6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

11월 4일~13일, 장안사 일대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의장 등 관계자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부산 기장군 천년고찰 장안사(주지 무관)가 11월 4일 '제6회 기장 국화분재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국화 향기 품은 행복 기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주최로 11월 13일까지 10일간 장안사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도시화훼학교 및 기장군 국화동호회가 출품한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됐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을국화분재 체험교실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체험교실에는 참가신청을 한 80개 팀 260명이 함께했다.

개막식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특별 축하행사를 생략했으며, 전시회에는 주지 무관 스님과 정종복 기장군수, 박우식 기장군의회의장 등 관계자 및 시민들이 함께 했다.

주지 무관 스님은 "기장군민들과 함께 도량을 국화 향기로 장엄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 천년고찰 장안사에서 멋진 작품을 감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꽃도 함께 활짝 피시길 바란다"며 "장안사는 지역민의 염원인 환경수호의 뜻에 함께하고 청정수행도량으로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051)709-5313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파라미타,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11월 6일, 창립 26주년 기념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 팀이 경연했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11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를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총장 눌은 스님,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김석조 前 부산파라미타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 명예회장, 이수길 해동고등학교장, 최낙현 해동중학교장, 박명규 금정중학교장, 현익채 前 금정중학교장이 참석했으며, 해동중학교 해동쇼콰티어, 해동고등학교 하모니아, 대인고등학교 대인코너스톤, 금정중학교 금정쇼콰이어, 범어사 소년소녀합창단 등 5개 팀이 경연했다.

경연 결과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300만 원)은 대인고등학교 대인코너스톤이 수상했으며, 금상(부산시장상, 상금 200만 원)은 해동중학교 해동쇼콰티어, 은상(부산시의회의장상, 상금 150만 원)은 범어사 소년소녀합창단, 동상(부산시교육감상, 상금 100만 원)은 금정중학교 금정쇼콰이어와 해동고등학교 하모니아가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재가동안거 수행입재



국선원, 대광명사 등 11곳 회원사찰 불자들과 개인 참여를 희망한 재가자 등 800여 명이 동참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11월 4일 혜원정사 대웅보전에서 '임인년 재가 동안거 수행 입재 및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위령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매년 안거마다 재가자들의 수행을 독려하고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재가안거 수행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재가 동안거는 11월 4일 입재식 후 11월 8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총 60일간의 수행 정진을 이어간다. 수행기간 동안 동참자들은 법정 스님이 옮긴 〈법구경〉을 1일 1구절 사경하고 '오늘의 수행일지'를 작성한다.

재가 동안거 수행에는 혜원정사, 안

입재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이태원참사 추모,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